

News

미국 연준, 3년 만에 금리인상 나서... 15일 FOMC 주목

SBS Biz

미국 연준,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시작... 현지시간 기준 15~16일 예정된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

이번 FOMC에서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CPI가 1년 전 대비 7.9% 급등했다는 점이 금리 인상 전망 확실히 굳혔다는 평가

5대 은행 파킹통장에 7조 뭉치돈...우크라 사태 '축각'

데일리안

국내 5대 은행 MMDA, 한 달 동안에만 7조원이 넘는 돈 쏟아져 들어와... 통상 연초에는 MMDA에서 자금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흐름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MMDA 잔액은 총 122조 2,234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6.3%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태 관망하려는 부동산 불어남 영향

'청년희망적금 돌풍'에 정책 상품 확대 기대...인뱅도 참여 저울질

뉴스투데이

최근 서민·청년 정책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목도 커져... 차기 정부 역시 청년 자산 증식을 위한 유사한 정책 상품 출시 가능성 확대 때문
해당 시장이 커질 경우, 인뱅 역시 눈독 들일 가능성 높아... 지난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는 약 290만명의 가입자 몰려... 예상보다 8배 많은 규모

은행 업무, 우체국서 본다... "점포 축소 대응책"

이투데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 국내 우체국 전 지점이 입출금이나 송금 등 은행의 단순 업무 대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올해 안에 시스템 연계 나설 예정... 다만 아직 세부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행 일정에 대한 논의 추가 필요

DB손보·현대해상 다음달 자동차보험료 내린다

디지털타임스

DB손보와 현대해상, 다음달 자동차 보험료 내릴 예정... 지난달 삼성화재가 인하 결정 내린지 약 3주 만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각각 1.3%, 1.2% 인하 결정... DB는 다음달 16일, 현대해상은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 적용 계획

보험사, 과잉진료 의심 병원 고소 공세... "실손보험료 누수 막겠다"

조선비즈

주요 손보사들, 실손보험 손해율 낮추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강화 및 과잉 진료 의심 경우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 펼치는 중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 실손 손해율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또한 GA 설계사 시책 및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손해율 개선 나서

우크라 사태에... 2월 외산 주식 18.6억달러 매도

e대한경제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18억 달러 이상 매도하며 4개월 만에 순유출 전환

반면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은 34억 9,000만 달러 순유입... 작년 1월부터 14개월 연속 순유입으로 최장 기록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 증권사 사활건 MTS 승부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MTS 경쟁 치열... 작년 59개 증권사의 전산운영비는 6,668억원으로 20년 대비 14.9% 증가

대어급 IPO 잇따름과 MZ세대 등 신규 고객층 확보를 위한 신규 플랫폼 등 서비스 경쟁이 치열... 1월 기준 KB증권 MTS가 MAU 1위... LG에너지솔루션 IPO 덕분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